

사회

보문고 전학 신청 83명으로 늘어

학생수 급감... 재정 압박 불가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보문고에서 재학생 83명이 전학을 신청했다. 2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보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학 신청을 받은 결과 1·2학년 재학생 423명 가운데 83명이 전학신청서를 접수했다. 전학신청 학생 82명 중 1학년은 78명, 2학년이 5명으로 1학년 재학생 208명 중 37%가 전학을 원했다. 지난해에 40여 명이 전학을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늘어난 것이다.

보문고는 1학년 280명 정원을 채우지 못해 현재 208명이 재학 중인데 현재까지 전학신청한 78명이 빠져나가면 애초 8개 학급 중 4개 학급만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유지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대책도 합의했는데도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전학신청 학생들을 위해 학교배정 추첨에 나선다. 거주지 근거리 원칙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다음 근거리 학교 순으로 배정된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전학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번 무더기 전학신청으로 보문고는 재정난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2개 반이 사라지게 돼 학교 운영을 학생 납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자사고 특성상 학교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학을 신청한 학생들의 학교배정도 선호학교 집중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문고는 2010년 자사고 지정 당시 전입 교육감이 학교의 과잉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전학신청 학생들을 위해 학교배정 추첨에 나선다. 거주지 근거리 원칙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다음 근거리 학교 순으로 배정된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전학

“선생님 수업은 B+”

전남교육청 초중고생 조사

전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전담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영어 과목의 수업 만족도를 ‘B+’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 지난 7월 도내 141개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생 중 3440명을 상대로 시행한 온라인 조사결과다. 교사의 수업진행에 대한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 평균 3.78점으로 대체로 만족 의견을 보였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만족도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67점, 일반고 3.65점, 특성화

고 3.45점 등 중등교육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졌다. 국·영·수 중에는 국어가 3.87점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수학은 3.69점으로 가장 낮았고 영어는 3.77점이었다. 이들 과목의 수업시간 집중시간은 응답자의 76.3%가 20분 이상 집중한다고 답했다. 과목 담당교사들이 해당 교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그렇다’ 이상의 비율이 70.9%였다. 알기 쉽게 가르치는지, 다양한 수업자료를 활용하는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지 등의 질문에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윤영기자 penfoot@

오늘 날씨
예상 강수량 20~60mm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가끔비 25/30°C
목포: 흐리고가끔비 25/29°C
여수: 흐리고가끔비 25/29°C
나주: 흐리고가끔비 25/30°C
완도: 흐리고가끔비 25/29°C
구례: 흐리고가끔비 24/30°C
강진: 흐리고가끔비 25/29°C
해남: 흐리고가끔비 25/29°C
장흥: 흐리고가끔비 25/29°C
순천: 흐리고가끔비 25/29°C
영광: 흐리고가끔비 25/28°C
진도: 흐리고가끔비 25/29°C
전주: 흐리고가끔비 25/29°C
군산: 흐리고가끔비 24/25°C
남원: 흐리고가끔비 23/28°C
육산도: 흐리고가끔비 25/28°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시간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오늘부터 올 수능 원서접수

내달 6일 마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고 3 수험생은 재학 중인 고교, 재수생은 출신 고교,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청에 각각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평일 접수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토요일·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는다. 원서 제출 후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하고 싶으면 9월 4~6일 지정된

장소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내야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수험자·군 북부자·입원 중인 환자·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겐만 허용된다. 원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여권 규격의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짙은 색 안경이나 모자 착용은 금지되며, 포토샵 등 프로그램으로 원판을 수정해서도 안 된다. /연필뉴스



왕골 손질 한창 21일 오후 함평군 월야면 외세마을을 정자에서 주민들이 논에서 갓 수확한 왕골이 마르기 전에 껍질을 벗기기 위해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교장 등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교사 등 264명(초등 190·중등 74),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장, 분청·국·과·과·과·과 간부 등을 포함한 18명에 대한 9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8명> 광주 초등의 경우 교육과학연구원 박형택 교육연구부장을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으로 임용하는 등 교장 48명, 교감 27명, 교육전문직 11명, 교사 104명 등 총 190명을 승진·전보했다. 중등에서는 운남고 최영산 교장이 교육과학연구원장, 전대사대부고 광

대훈 교장은 학생교육원장을 맡게됐다. 도교육청은 김선홍 광양교육장을 분청 교육국장, 정재기 화순교육장은 운남군 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은 오인성 교원정책과 유초등 인사담당 장학관을, 미래인재과장은 구희태 노화교 교장을 임명했다. 해남교육장에는 정동기 보성초 교장, 무안교육장에는 양진용 현경북초 교장, 진도교육장에는 최은식 목포에향초 교장이 각각 발탁 임명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주시 가축 급성 전염병...한우 6마리 폐사

나주의 한 축산 농가에서 가축법정 전염병인 기종저(氣腫痘)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한우 6마리가 폐사했다. 나주시는 21일 “나주시는 남평읍 정모씨 축사에서 기르던 한우 4마리가 19일에, 2마리는 20일에 폐사했다”면서 “부검 결과 근육과 심장 등에 출혈과 함께 살점이 썩는 등 전형적인 기종저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폐사한 한우를 소각처리했으며 함께 키우던 한우 12마리에

는 항생제를 투여했다. 또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한우 분변과 토양 등을 채취, 축산위생사업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내린 비로 토양에 있던 기종저균이 소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정씨 축사 주변을 차단하고 방역과 소독을 마쳤”다고 말했다. 기종저는 토양에 숨어 있던 기종저균에 의해 소나 양에 발생하며, 세균이 동물의 피부와 상처를 통해 침입

해 근육 등을 부게 하는 등 급성 패혈 증 증세를 일으켜 죽게 한다. 사람이나 가축 전염은 되지 않고, 토양에서 가축의 상처로 직접 전염된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5~6월 광양과 장흥의 농가 2곳에서 7마리가 기종저로 폐사했다. 한편 나주시는 2166농가가 4만4152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전남 최대 한우 사육지역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찰, 내무 비리 고발땀 1000만원 포상

‘시민감찰위’ 발족

경찰 조직에 내부비리 수사팀이 신설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부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경찰의 새신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 직속의 ‘내부비리수사팀’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총경급이

지휘하는 내부비리수사팀은 베테랑 수사관 9명으로 구성돼 유흥업소와의 유착 등 경찰의 직무 관련 비리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부 감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 이날 발족했다. 경찰청 7명, 지방경찰청 84명 등 총 91명으로 구성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주요 비위 사건의 처리 방향을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자문 역할도 하게 된다. /연필뉴스

신안 흑산면 앞바다 규모 4.2 지진 발생

지난 20일 밤 10시43분께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15km 해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 주민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 4.2 지진은 물건이 흔들리고 정지한 차가 뚜렷하게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정도로 육지에서 지진이 날 경우 실내에 있는 사람은 느끼지만 야외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약진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ung Youngjin Driving School' with text: '문자건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